

보살의 길

2012년 봄호 제 48호



3월14일 홈플러스 나들이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02

직원의 글



진 관 사무국장

말(言語)과 소통(疏通)

우리 사회는 너무 말(語)이 난무한다.

말이 말을 만들고 그 꼬리를 물고 또 말이 말을 만든다. 입 가진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고, 그 말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이해(利害)는 생각지 않는다.

위로는 정부의 고위층부터 국회의원 장관 내로라하는 공인(公人)까지 모두가 말로부터 시작하여 허망한말로 끝난다. 자기가 한 말의 실천이나 책임은 말하고 난 뒤에는 곧 망각(忘却)하고 만다. 국민들이야 살기 바빠 일상생활의 언어도 줄일 판이다. 말 많은 사람치고 내뱉은 말의 실천이나 책임을 지는 이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만큼 힘들다. 도대체 남이 옳은 말을 하면 경청(傾聽)은커녕 그 말의 시비(是非)를 먼저 따지고 자기 주장의 합리성(合理性)부터 주장하니 대화가 될 수 없지 않겠는가! 남이 말 할 때 침묵하고 듣는 인내는 너무 인색하다.

마땅히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잘못이다. 반드시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해야만 서로의 대화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자(公子)가 말했다. “함께 말할 만한테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데 말하면 말을 잃는다(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不可與言而與之言).” 할 말만 하고, 공연한 말은 말라는 뜻이다. 맹자(孟子) 진심(盡心)에는 이렇게 말했다. “선비가 말해서는 안 될 때 말하는 것은 말로 무언가 취하려는 것이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음으로서 무엇인가 낚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굳이 공자나 맹자의 말을 펼쳐보지 않아도 식자(識者)라는 사람들은 알고는 있으나 이것을 실행하고자 해도 망각이 가로막는다. 소통의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남의 말을 경청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여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 결론짓는다면 바로 이것이 말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곧 소통(疏通)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현재의 많은 문제는 위의 생각을 아래에 무조건 이해하라고 하고, 자기의 말만 옳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여기는데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소통은 옆에 사람의 말을 듣고 아래의 말을 듣는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먼저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하지 입이 아니다.

말은 미세한 데서 일어나지만 그 쓰임새는 실로 넓다. 말의본성만 어기지 않을 수 있으면 교화시키고(化) 명령하고(令) 고지하고(告) 가르칠(訓) 수 있어 생물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함부로 내뱉으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근(禍)이 된다.

당(唐)의 문장가 한유(韓愈, 768~824)의 글 “말을 가리는 것에 대한 풀이(釋言解)”다. 그는 불과 물로 인한 재난은 막을 수 있어도 말이 초래한 화(禍)는 막을 길이 없다며 경계했다. 택언에 조심하지 않고 교묘하고 능란하게 세 치 혀를 놀리는 것이 변(辯)이다. 그래서, 노자(老子)는 “선한 자는 말을 잘하지 않고, 말을 잘하는 자는 선하지 않다(善者不辯, 辯者不善)”고까지 말했다.

우리가 새겨들을 만하지 않겠는가!

이제 신묘(辛卯)년은 과거의 시간 속으로 사라졌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다. 시계와 달력으로 시간을 재단하고 관리하지만 때로 시간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때론 영원할 것처럼 늘어진다.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일 것 같은 시간은 사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다, 인위적이기도 하다. 허언(虛言) 하지 말고 침묵할 때는 바위와 같이 무겁게 하고, 말을 해야 할 때는 용기 있게 나서서 말을 해야 한다. 상하좌우(上下左右)가 진실(眞實)과 신의(信義)의 말로 소통하여 이 사회가 원하는 한 차원 높은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바른 사회일 것이다.

또한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철학으로 사회를 이끌어 물이 흐르듯 소통하는 길을 만들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뜻을 뒤야 할 것이며, 임진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진실과 신의의 말로 사회를 만들어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같이하는 세상이 되도록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김명옥

우리의 만남은 비록 15일로 실습기간은 짧았지만 좋은 선생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정이 많이 들어 헤어지려니 아쉬움이 큼니다. 해명양로원 실습이 저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슈퍼바이저 김정희선생님! 저같이 나이 많은 실습생들을 변함없이 자상하신 모습으로 가르쳐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승과 제자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잘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좋은 모습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남은시간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해명양로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원장님을 비롯하여 슈퍼바이저 김정희선생님 생활지도원 선생님들 그리고 양로원에 어르신들과 모든 직원들 2012년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정목

더불어 삶이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연꽃도 진흙과 물이 고인 연못이 없으면 찾을 수 없듯이 인간사 모든 희로애락이 인연 속에서 일어나니, 내가 욕심 없고 맑고 향기로운 때 내 앞에 인연 또한 평화로 나에게 온다. 부자도 빈자도 인연을 통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배가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배신과 상처를 얻는 것은 그 속에서인데 오늘 우리는 인연 지어진이에게 어떤 모습일까?보름 동안에 만남! 실습생으로써의 자세와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으로 슈퍼바이저님의 강의 시간에 한 목소리도 놓치고 싶지 않아 기재하고 또 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실전에서 많은 것을 배워감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누가 말했던가요? 마지막 시간까지 소중히 여기며 좋은 인연과 좋은 모습으로 비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2년을 맞이하여 해명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임월자

처음에는 양로원에서 실습을 하게 된 것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나이 많아 공부를 하니 어디로 실습을 가야 할지 선택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고심 끝에 양로원에서 실습을 받기로 결정을 보고 찾아가 허락을 받고 실습을 하기 시작 한 것이 2주가 되었군요 실습을 할 때는 힘들었지만 이곳에서 실습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앞으로 실전에서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또한 생활지도자 선생님들은 어찌면 그렇게도 케어를 잘하시는지 앞으로 제가 실전에서 케어를 하다가 힘들 때 해명양로원 선생님들 생각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그동안 실습생들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도 하겠습니다.

이정혜

연휴 며칠 동안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안부가 궁금해진다.오매불망 기다리시는 아드님께 연락은 왔는지? 까칠하신 우리 할머니 오늘은 불편한 투정은 없으신지? 실습이라는 부담감에 해명으로 향하는 무거웠던 첫발걸음이 어느 사이 어르신들과 듬뿍 든 정을 어찌해야 할지 또 다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려야 하는 것 같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소망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선배 사회복지사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했던 배움의 시간들 감사드리며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 대림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으로 2012년 1월 2일부터 보름간 실습을 하였습니다.



04

직원의 글

동양의 진주 스리랑카를 다녀와서

박혜정 생활지도원

실론(Ceylon), 셀렌디브(Serendib), 인도의 눈물(Teardrop of India), 빛나는 작은 섬(Resplendent Isle), 다르마 섬(Island of Dharma), 동양의 진주(Pearl of the Orient) 등 스리랑카를 일컫는 수식어로 스리랑카의 풍요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실론에서 알 수 있듯이 홍차로 유명한 나라이다.

연수의 목적은 스리랑카조계종복지타운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스리랑카의 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데 우리의 노하우를 시설에 전하고, 연수에서는 직무교육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자비복지를 실천하는 중간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불교복지를 이끌어 갈 핵심리더들의 상호 소통과 유대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제1일차** : 아침 6시 20분 인천공항에서 12명 모여 탑승수속 하고 9시 출발하여 싱가포르 국제 공항에서 8시간 기다린 후 콜롬보행 비행기 탑승하여 콜롬보 시간으로 새벽 1시경 도착하여 네곰보의 호텔에 투숙 하였다.
- 제2일차** : 아침 8시 40분 캄파지역 스리랑카 조계종 복지 센터로 출발했다. 오후에 후원품 전달 후 사마디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방문객들과 아이들이 허물없이 어울렸으며 아이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 제3일차** : 중세 최대 불교 유적지, 웅공유적지 등 순례. 스리랑카에서 사찰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고, 부처님께 엉덩이를 보여 주면 안 된다는 안내인의 설명이다
- 제4일차** : 가장 바쁘게 다닌 날이고 중요한 곳을 순례한 날이다. 시기리아는 플론나루와의 정글 속에 있는 바위 위의 궁전이다. 이곳은 카사파왕이 피난을 위하여 바위 꼭대기에 세운 여름 궁성터라고 한다. 입구에 사자 발톱 모양이 쪽에 있다.
 - 알루비하라는 아자임으로 된 종이(파피루스)에 부처님 말씀을 글로 새긴 최초의 패엽경을 모신 곳으로 주지 스님께서 패엽경의 제작과정을 직접 보여 주었다.
 - 담블라 석굴은 5개의 동굴에 부처님을 모셔 놓았다.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외불상이 있었고, 생전 사후의 부처님 모습의 구별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사후 모습은 윗발이 약간 뒤로 가 있는 것이라 한다. 캔디의 불치사에는 월요일 오후인데도 부처님 치아 사리가 모셔진 탑을 보기 위해 많은 신도들이 모여 있었다. 사리탑을 보기 위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다.
- 제5일차** : 1,800m의 고산지대에 있는 누아라엘리아 차밭과 차의 제조 과정을 보았고, 이어 동양 최대의 페라데니아 식물원을 관람했다.
- 제6일차** : 누아라에서 9시 출발하여 오후 4시경에 콜롬보에 도착해 차로 시내관광을 하고, 저녁 식사 후 공항으로 갔다.
- 제7일차** :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스리랑카는 70%에 육박하는 국민이 불교를 믿는 국가이다. 마을마다 중앙에 부처님이 있었고, 부처님 옆에는 항상 보리수나무가 있다. 우리의 문화와는 달리 스님을 만나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며, 사찰에 들어설 때는 항상 신발을 벗어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불교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시기리아의 바위 위에 건물은 없고 유적지 터만 남아 있었으나 불가사의한 건축기술에 놀랐다.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한 점도 있었으나, 작은 국가이면서도 웅장한 자연경관과 특이한 식물들, 유적지 관람 등 매우 유익한 여행이 되었다.

해명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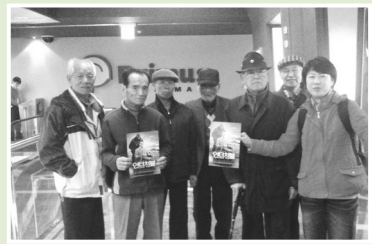
| 우담바라 |

매월 둘째주 일요일 우담바라 카페 회원들이 나와 어르신들과 다양한 미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월 그림색칠, 2월 사탕만들기, 3월 단주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모두 쉬고자 하는 일요일 어른 신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나오시는 카페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정빈님과 최지현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어르신께 용돈지급 |

1월20일 박재근원장님께서 입소어르신께 갈비찜대접(대중공양)과 용돈을 지급하여 주셨습니다.



| 영화관람 |

한달에 한번 문화바우처카드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2월 더 그레이, 3월 언터처블을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더 그레이는 인간의 극한을, 언터처블은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한 영화들이었습니다.



| 척사대회 |

2월 8일 9회 척사대회를 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대항 토너먼트로 이루어지는 척사대회는 이번에도 할머니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팀과 준우승팀은 상품으로 외식상품권을 받아 맛있는 한방삼계탕을 드셨습니다.



| 메아리에예술공연단 |

매달 셋째주 금요일은 메아리에예술단의 노래공연이 있습니다. 박상근회장님을 비롯하여 4~5명의 가수들이 오서 어른들께 옛 노래를 들려 드리고 있습니다.



| 발맞사지 |

2월15일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봉사단이 발맞사지 봉사를 나왔습니다. 학생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발맞사지를 받는 어른들의 모습이 유난히 편안해 보였습니다. 자주 나와 어른들께 즐거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홈플러스 쇼핑 |

3월 14일 분기별로 진행되는 대형마트 쇼핑이 있었습니다. 구입할 물건을 미리 작성하여 마트 구성구석을 다니며 구경도 하고 물건도 구입하며 쇼핑을 하였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고자 하는 물건을 찾아도 주시고 도움도 드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 어르신 외식 |

한달에 한번씩 어르신들이 욕구를 반영한 외식나들이가 있습니다. 1월 오리고기, 2월 삼겹살, 3월 추어탕을 드셨습니다. 식사들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자주 모시고 가겠습니다.



| 치매선별검사 |

금천구 치매지원센터에서 내방하여 치매 선별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2차검진을 실시하였고 필요한 분들은 약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06

시설현황

해명동정



시설개요

- 시설명 : 해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 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직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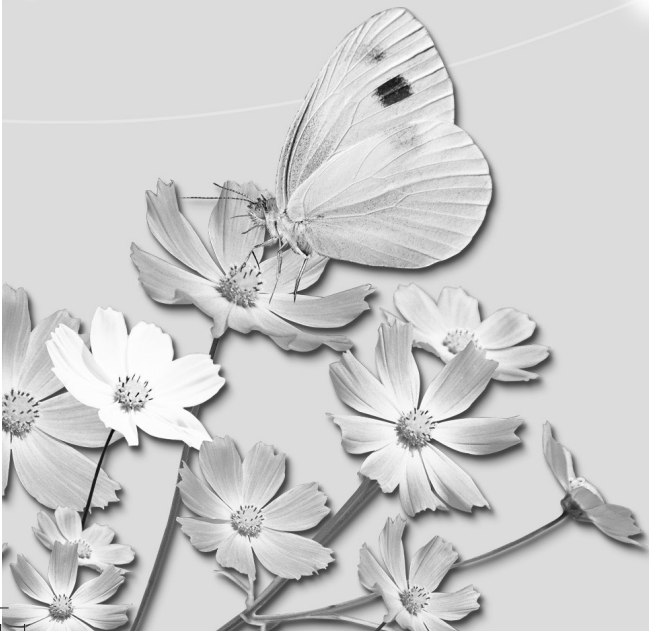
- ▶ 총 17명
- 원장 1명 /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 간호사 1명 /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생활지도원 5명 / 물리치료사 1명
- 위생원 1명 / 서무 1명 / 조리원 3명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현재 입소인원 (3월 31일 기준)

- ▶ 총 64명 (할아버지 : 28명 할머니 : 36명)



자 원 봉 사 자 * * * * *

2012년 1월 1일 ~ 3월 31일

이승희, 민경숙, 소미숙, 한상애, 이양숙, 황옥경(말그림색칠화사회), 문덕녀(대림미용실), 임호순외6명(치과진료), 조규용, 김용기, 유만수(한방침술봉사팀), 오정은(건강체조), 백련사울림회, 오정자(아코디언), 박미란(말벗), 김동섭, 최지현, 한은옥, 남미영, 최소희, 윤정빈(우담바라), 소미숙, 한종임, 한희주, 김미정, 이정순(민들레모임), 이강택, 임효정, 양승학, 황춘자, 함미옥, 김남숙, 김옥심, 김영미, 이선녀, 선태순(알송달송구연동화), 신숙례, 전옥선, 고준자, 박광예, 이원자, 이득남, 김영미, 이정조, 임태경(자비나눔예술봉사단), 박상근 외 4명(메아리예술공연단), 성낙권, 박종보, 손선희, 백영일, 조용대(삼운회), 김소연(행복날개수련원)

후 원 자 * * * * *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후원물품

푸드뱅크, 최선자, 변상신, 백련사, 치공사혜명회, 희명병원, 우리은행, 금천구의원, 한승주, 삼진섬유, 반야회6기, 안양원각사, 입소자지인, 애기동자보살님, 다복소리회, 최유성, 찬불가혜명회, 서서울생활과학교, gs리테일, 인천보살님, 이정혜, 김명옥, 임월자, 이정목, 자비나눔예술봉사단, 알송달송구연동화봉사단, 삼운회, 박재근(현성)큰스님, 민주평통서대문협의회,

후원금품

윤재순 90,000	한노협 1,160,000	박성수 60,000	최형기 20,000	권기상 100,000	문금자 30,000
구봉순 30,000	이정호 15,000	부의숙 20,000	이애자 10,000	한진택 300,000	조관우 10,000
백승풍 60,000	보명사 300,000	강운호 100,000	독지가 284,000	이복자 20,000	박혜정 20,000
양보금 20,000	안효주 600,000	남부교도소 200,000		마희전 30,000	박세진 30,000
이순자 60,000	구수미 400,000	박두영 400,000	임옥수 300,000	구충수 300,000	황준순 20,000
이정복 10,000	이태영 100,000	황재욱 20,000	조방희 20,000	박성자 15,000	이정목 100,000
한명숙 200,000	이마트 5,859	박기완 90,000	한미옥 20,000	기업은행남중지역본부 300,000	
진금희 20,000	한공미 20,000	류지숙 50,000	박인숙 20,000	박미정 20,000	이정혜 100,000
김명옥 100,000	김선분 5,828,471	정유림 10,000	한국거래소 400,000	기업은행남부지역본부 300,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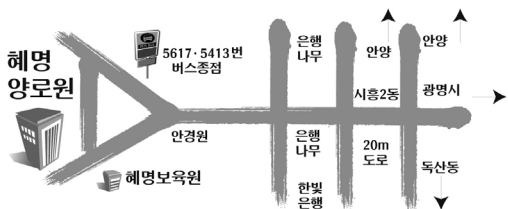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지로번호 : 7655940
-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예금주 : 혜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마을 버스 1번 범일운수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5525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 재 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